

487장 -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 (1) 어두움 후에 빛이오며 바람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나며 수고한 후에 쉬이 있네
- (2)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난 후에 웃음있고 씨뿌린 후에 추수하네
- (3) 괴로움 후에 평안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있네
- (4) 고생한 후에 기쁨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있고
죽음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1월17일(토) 기도 담당 : 구성수 집사

2018년 11월 16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87장
기도	최길선 집사
성경봉독	시편107편 1~8절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엄재광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304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시편107편1~8절>

-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2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
- 3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 4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 5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 6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 8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참고구절 <시편107:17>

- 17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11월 16일(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주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주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따라 살게 하옵소서(시편16:8).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서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생각해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백성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의 빛진자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제자되게 하옵소서.

새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새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거룩하게 지어지게 하옵소서. 새성전이 한국교회 부흥의 발판이 되며, 열방과 세계선교를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적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기도수첩 7권 20번). 건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건강과 직장과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평강의 복으로 더해 주옵소서(시편 29:11).

도우시는 하나님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 은혜가운데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며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사, 주를 위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두고 온 삶의 빈자리를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 없사오니, 이 나라를 기억하사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